

시각장애자는 어떻게 독서환경을 획득하였는가

- 점자도서관, 공립도서관, 독서권운동의 관계를 중심으로 -

김 지 현

The Blind and their reading environments: a historical survey

KIM Ji.Hyun

This research examines the causes behind the Reading Rights Movement by the Blind. Two problems for the movement exist. The first problem is the fact that the Blind have expressed their preference for information needs to the public libraries instead of the Braille libraries. The other problem is that Braille libraries could not respond to their needs. One of the reasons for these two problems is the fact that information needs of the Blind have increased due to widespread adoption of and improved education for the Blind. The other reason is a gap exists between the services of Braille libraries and the information needs of the Blind.

서론

도서관은 사회 속에 놓여져 사회적 배경과 변화의 영향을 받지만, 또한 도서관 이용자의 영향도 받는다. 한 예로 공립도서관 서비스는, 전쟁 전과 전시중에는 출판의 통제와 정부측의 국민사상통제의 의도하에 도서관 서비스가 이루어졌고, 전쟁 직후에는 사회교육기관으로서 양서의 제공에 힘써왔다. 그리고 경제가 발전하고 생활에 여유가 생기게 되어 이용자의 요구가 다양해진 시기에는, 그 요구에 대응하는 서비스를 전제시켜온 것이다.

한편 점자도서관은 성립초기부터 시각장애자에 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그 시작은 점자도서관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기관의 필요성을 시각장애자 스스로가 인식한 것에 있다. 시각장애자는 자발적으로 서비스의 시작에 관여하며 점자도서관을 제공해왔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적극적으로 점자도서관을 이용해왔던 것이다.

그런데 1970년에 시각장애자독서권보장협의회(시독협)이 독서권운동을 일으켰다. 그 때까지 점자도서관을 이용해온 시각장애자는, 점자도서관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정보요구를 공립도서관에 대하여 표출하고, 공립도서관을 이용할 권리와 독서권을 주장하였다. 이 운동은 도서관계에 있어서 시각장애자를 위한 서비스의 필요성을 인식시켰고, 또한 바람직한 서비스에 대하여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독서권운동의 기인과 관련하여 의문이 생긴다. 왜 시각장애자의 정보요구가 공립도서관에 대하여 표출된 것일까. 그러나 이 의문을 생각하기 이전에, 시각장애자가 정보요구를 표출하게 된 상황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것은 왜 그때까지 점자도서관을 이용해온 시각장애자가, 점자도서관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정보요구를 가지게 되었는가하는 것이다. 또 시각장애자는 그러한

새로운 자료나 정보를 일본점자도서관에 대하여 요구하지만 거절당하였다. 왜 일본점자도서관은 시각장애자의 새로운 정보요구에 대응하지 않았던 것일까. 이 두 가지의 의문을 밝히는 것은, 시각장애자가 더 많은 자료나 정보를 얻기 위해 공립도서관에 대하여 독서권을 주장하게 된 요인을 찾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된다.

한편 독서권운동이 일어난 상황에 대하여 언급한 문헌을 보면, 공통적으로 점자도서관을 문제시하고 있다. 소위 점자도서관 장서수의 부족, 편중된 장서구성, 이용자의 정보요구에 대응하지 않은 서비스, 점자도서관직원의 안이한 태도나 인식 등과 같은 것이다. 그러나 독서권운동이 일어난 요인은, 단순히 점자도서관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이 본고의 입장이다. 그러나 관련문헌에서는 일관하여 독서권운동의 요인으로 시각장애자의 열악한 독서환경과 점자도서관의 대응의 부족만을 지적하고 있으며, 그 이외의 요인에 대해서는 언급되어있지 않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독서권운동이 일어난 근본적인 요인을 찾을 목적으로, 이용자의 정보요구와 도서관의 대응이라는 관점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제1장에서 점자도서관의 성립과 그 변천을, 이용자인 시각장애자의 요구라는 시점에서 되돌아본다. 제2장에서는 독서권운동을 전개시켜가는 중에서, 시각장애자가 요구한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살핀다. 제3장에서는 독서권운동의 요인에 대하여, 이미 제시한 2개의 의문, 즉 시각장애자의 요구와 일본점자도서관의 대응을 중심으로 고찰한다.

1 시각장애자의 요구와 점자도서관의 변천

1.1 시각장애자의 요구와 점자도서관의 성립

일본의 점자도서관은 성립 때부터 시각장애자 자신의 필요나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 江戸시대에 교육기관이 보급되고 리터래시가 널리 퍼지면서 중상층 농민이나 마을 사람들의 독서활동(24, p. 13)을 뒷받침했던 서적은, 시각장애자가 이용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니었다. 그러나 그 후 각지에 도서관 설치가 장려되어 그 수가 증가하면서, 시각장애자를 위한 도서관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하여지게 되었다. 처음으로 그것이 논하여진 것은 메이지(明治) 39년(1906)의 “万朝報”에 실려있는 山県五十雄의 “일본 현시(現時)의 맹인사회”이다. 거기에서 그는 “맹인용의 점자서적은 출판되는 것이 적고, 고가이며 부피가 상당히 커서, 보통 서적의 거의 10배이상이나 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일반 맹인이 많은 양의 점자서를 자택에 갖추어놓는 것은 곤란하다. 이에 맹인용 도서관의 필요성이 생긴다”(31, p. 3)라며 점자도서관의 필요성에 대하여 논하였다. 즉 점자도서관이 가지는 단점, 소위 고가에 일반서적보다 커서 많은 공간을 점유한다는 점에서 개인이 점자도서관을 많이 보유하는 것은 어려우며, 따라서 점자도서관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도서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던 것이다.

점자도서관의 필요성이 이론적으로 인식되긴 했지만, 실제로 점자도서관이 성립된 것은 중도실명자인 加藤梅吉이 수집, 점역한 점자도서관의 기탁으로인해서였다. 大正5년(1916) 5월 3일 “東京朝日신문”은 이것에 대하여, “이전부터 점자로 번역되어 있었던 것과, 加藤씨가 새롭게 번역한 침안술의 서적 및 부여귀(不婦), 금색야사(金色夜叉)와 같은 소설 등의 서적을 합하면 이미 200권에 이른다.

加藤씨는 이것을 東京市の 도서관에 비치해줄 것을 교섭한 바, 東京市도서관 측에서도 크게 동정" 하였다고 보도했다. 그리고 東京市本郷도서관에 점자도서실이 설치되었던 것이다.

이것이 일본에 생긴 최초의 점자도서관이며, 그 이후로 맹인열람실이나 맹인도서관이 연달아 설치되어, 일반 시각장애자에게 독서를 넓히는 기능을 하게 되었다. 구체적으로는, 1919년 7월에 新潟현립도서관에 맹인열람실, 1927년 石川현립도서관, 1928년 徳島현립도서관에 각각 점자문고, 1929년 1월에는 鹿児島현립도서관에 맹인열람실, 9월에 名古屋시립도서관, 長野현립도서관에 점자문고, 또한 같은 해 神戸시립도서관에서도 점자문고가 설치되었다(6, p. 107-108 ; 14, p. 35 ; 15, p. 166, p. 236 ; 20, p. 186-187). 이러한 맹인열람실이나 점자문고의 주된 서비스 내용은 점자도서의 제공이었다.

당시의 시각장애자는 일반 도서관의 증가나 독서의 보급처럼, 점자도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도서관의 존재와 시각장애자에게의 독서(점자도서)의 보급에 대한 요구를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초기에 설립된 점자도서관에 대해서 일반 도서관이 행하고 있는 기능과 같은 도서관적인 기능을 요구하고 기대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초기의 점자도서관이 수행했던 기능도 그 기대와 일치했다. 예를 들면, 山県五十雄은 “万朝報”에 실린 기사에서, 영국의 맹인용 도서관에 대하여 소개하고, “...맹인용 점자서를 대출할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31, p. 3)라며 점자도서관의 역할에 대해 썼다. 그리고 大正5년(1916) 5월 3일의 “東京朝日신문”에서 加藤梅吉에 의한 점자도서의 기부에 따른 맹인도서관 설치의 준비에 관하여 보도한 기사에서는, “하기야 맹인은 주로 일을 하는 자가 많은데, 언제 손님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도서관이 생기더라도 매일 일부러 가서 독서할 자는 비교적 적고, 대개는 책을 빌려가서 손님을 기다리는 틈에 심심풀이로 한 자 한 자 점자를 더듬으며 즐기고자 하는 것이니, 대출이 주가 될 수 밖에 없다”며, 점자도서관의 역할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다. 또 竹林熊彦은 “맹인이 도서관에 오는 것은 곤란” 하며, “고로 맹인도서관은 점자도서의 대출을 주로 하여야 할 것”이라고 적고 있다(12, p.49). 이들의 이론에서 볼 때, 초기의 점자도서관의 역할은 일반 시각장애자가 소장, 보관하기 힘든 점자도서를 점자도서관이라는 장소에 모아 관리하고, 그것을 시각장애자에게 대출제공하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즉 점자도서관은 처음부터 시각장애자의 필요에 의하여 도서관적 기관으로서 성립되었고, 점자도서의 관리, 보관, 제작, 제공이라는 기능을 담당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독서환경이 상당히 빈약한 시각장애자에게 독서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적생활의 향상에 일익을 담당하였던 것이다.

1.2 시각장애자 스스로에 의한 점자도서관의 설립

1920년대 이후로 점자도서관이 신설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일본라이프하우스와 일본점자도서관의 설립은, 오늘날에 있어서도 시각장애자의 정보제공기관의 두 기둥을 이룰 정도로 중요하다. 그것 뿐만이 아니라, 이 두 기관의 설립 역시 스스로 필요성을 느끼고 시각장애자의 문화를 지지, 향상시킬 것을 의도로 한, 시각장애자 자신에 의한 것이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1917년 早稻田대학교 재학 중에 실명한 岩橋武夫는, 1920년부터 1923년까지 関西学院에서 배우고, 1925년부터 1928년까지 영국의 에딘버러대학에서 유학

했다. 거기서 그는 종교철학의 석사학위를 취득하였고, 영국의 발달된 맹인복지에 대하여 배웠으며, 마더여사의 “라이트하우스 운동”에 크게 공감을 가지고 그 실현을 바라고 있었다. 귀국 후에는 関西学院의 전문부 강사로서 종교철학, 영문학을 강의하고, 大阪시립맹학교에서 국어와 영어를 가르쳤다. 그리고 1935년 10월 15일에 개인 재산을 위주로 하고 독지가의 기부를 받아 라이트하우스를 설립하였고, 이듬해 4월에는 점자도서관을 개관하였다(25, p. 5-21).

라이트하우스의 개관에 이르기까지 岩橋는, 1929(昭和4)년 “사회사업연구”지에 “영국의 맹인사회입법”이라는 제목으로 영국의 실태를 보고하였고(17(2), p. 31-39 ; 17(3), p. 9-16 ; 17(4), p. 1-6 ; 17(6), p. 79-85 ; 17(7), p. 6-13 ; 17(9), p. 46-57 ; 17(12), p. 17-25에 게재), 같은 해 6월 4일에 내무성 사회국에서 실시된 마더여사의 강연을 통역하여 그 요지를 “암실의 왕자”(1932)에 게재하였다(3, p. 272-287). 또 “맹제의 혁신적인 이데올로기는 탁상공론이 아니고 피땀어린 과감한 실천만이 있을 뿐이다”고 중앙맹인복지협회를 비판하였다. 그 외에도 자신의 장서에 흥미를 가지는 맹인들에게 빌려주었고, 자택에서 집회를 열어 젊은 맹인들을 고무시켰으며, 맹인에스페란토협회를 설립하여 해외의 맹인사정을 배우도록 유도하기도 하였으나(25, p. 19), 이러한 것들은 개인적인 영역에서의 활동에 지나지 않았다. 라이트하우스의 설립에 대하여 岩橋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당시의 시각장애자가 놓여진 상황이나 사회사업의 필요성을 엿볼 수 있다.

자신이 분수에 맞지 않게 서제를 떠나 사회사업에 종사하는 것은, 자신의 속에 있는 사람이, 어둠에 둘러싸여 경제적, 사상적, 직업적, 교육적, 문화적으로 어떤 의미에서든 현대문화에 뒤처져 학대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일할 것을 결심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11, p. 41).

이렇게 해서, 라이트하우스는 1,200권의 점자도서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점자도서제작, 대출사업을 시작하였으나, 전시중에 큰 제약을 받게 되었다. 1938년 11월에 사회사업법부칙제2항에 따라 맹인사회사업으로 인정받아, 특히 실명군인의 갱생원호에 전적으로 힘썼던 것이다(13, p. 232-233).

라이트하우스가 토키복의 제작, 대출사업을 개시한 것은 1959년이며, 1961년에는 후생성으로부터 음성도서의 제작 및 대출사업의 위탁을 받았다. 또한 1963년에는 후생성으로부터 점자도서제작 및 대출사업을 위 _ 받게 되어, 다시 도서관 사업이 활발해졌다(25, p. 167).

일본점자도서관을 설립한 本間一夫는 5살에 실명하여, 1929년부터 1934년까지 函館盲啞院에서 정규교육과정을 받았다. 그 동안에 函館에 온 岩橋武夫와 熊谷鉄太郎의 강연을 듣고 큰 감명을 받았다. 더욱이 好本督의 저서에서, 런던에는 세계에서 제일 큰 점자도서관이 있으며 책장을 모두 나열하면 3마일반(약 5.6키로)나 된다고 쓰여진 부분을 읽고, 일본에서의 점자도서관 사업을 결심하였던 것이다. 그 결심에서도 당시의 시각장애자의 독서환경의 빈약함과 시각장애자에게 서비스하는 기관의 부족함을 알 수 있다(26, p. 4, p. 19, p. 28-31).

“일본에는 아직 점자도서관이 없다. 있어도 되는거 아닌가. 이렇게 훌륭하고 보람있는 일이 아직 남아있다!”...(중략) 점자책의 빈약함을 슬플 정도로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기에, “나중에 올 맹인을 위해, 점자도서관 만들기를 내 평

생의 일로 해야겠다”는 결심이 점점 굳어지게 되었습니다(26, p. 31-32).

本間는 점자도서관 사업이 발달된 미국이나 영국의 점자도서관을 배우기 위해, 영어를 배울 목적으로 1935년부터 1938년까지 関西学院대학교 영문과에서 공부하였다. 그리고 1940년 11월 10일, 온갖 지원과 지지, 격려 속에서 약 700원의 점자도서와 책장 4개를 갖추고 일본맹인도서관(후에 일본점자도서관으로 개칭)을 개설하여 시각장애자에 대하여 도서관 사업을 시작하였던 것이다. 특히 1941년 이후 태평양전쟁에 의해 증가한 실명군인의 이용 신청이 잇따르자, 점역봉사운동의 발전과 도서관시설의 건설이라는 2가지 사업이 구체적인 형태로 전개되었다. 그 후 맹학교 학생들과 맹인들의 독서요구와 점자도서관의 일부 직원의 눈물겨운 분투로 1958년부터는 레이프 라이브리리 사업을 시작하였다(26, p. 53-54, p. 64-65, p. 119-124). 그리고 후생성으로부터 1954년에는 점자도서 대출사업의 위탁을, 1961년에는 일본 라이트하우스와 같이 음성도서의 제작, 대출사업의 위탁을 받아, 점자도서의 음역도서의 제작, 대출이 일본점자도서관의 기본적인 사업으로서 정착하였다(25, p. 166-167).

이상의 예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시각장애자를 위한 점자도서관사업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던 것은 시각장애자 자신이었다. 물론 사업을 행하는 데 있어서 많은 자원봉사자의 도움과 자금원조를 받긴 하였지만, 사업의 시작 자체는 시각장애자 스스로가 필요성을 인식하였던 것에 있다. 그것은 스스로가 이용자이며, 이용자의 요구를 잘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1.3 시각장애자의 요구와는 다른 점자도서관의 변화

전쟁후 점자도서관의 자리매김이나 서비스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다. 1949년 12월에 “신체장애자복지법”이 공포되어 이듬해부터 시행된 것이 그것이다. 설령 전시중이나 전쟁 직후의 점자도서관이 실명군인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전개하였다 하더라도, 점자도서관의 기능은 시각장애자에게 독서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덕함양과 맹인 문화의 향상에 기여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의학이나 위생 등과 같은 필요한 전문지식도 제공하는, 소위 도서관적 기능이였다. 그러나 도서관법보다 먼저 제정된 “신체장애자복지법”에서 점자도서관은, 시각장애자를 위한 “갱생원호시설”(정확하게는 갱생원호시설 중에서 “시청각장애자 정보제공시설”)로 지정되었고, 그 후에 제정된 도서관법에는 점자도서관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더욱이 시립도서관이 말하는 것처럼, “시민 전체에 서비스해야 할 공공도서관으로서의 시설, 경비에 한계가 있는 이상, 다수의 요망을 우선할 수 밖에 없어”(15, p. 236), 그때까지 공공도서관에서 행하였던 점자도서관실이나 시각장애자서비스도 예산상의 한계나 서비스의 성격의 차이를 이유로 분리시켜, 사회복지사업으로서의 점자도서관에 개편되었다(15, p. 242 ; 22, p. 25). 한편, 점자도서관 측에서는 그때까지 집중하여 행하던 도서관적 업무에 시각장애자의 자립을 지원하는 갱생원호적 업무가 추가되었다.

“신체장애자복지법”의 제정으로 점자도서관이 갱생원호시설로 지정되어, 도서관적 기능에 갱생원호적 기능이 추가된 것은, 시각장애자가 바랬던 것이 아니었다. 물론 시각장애자는 “신체장애자복지법”의 제정 이전 단체에서, “맹인복지법”을 실현시키기 위해 연합국군총사령부, 후생성, 국회에 적극적으로

요청하였다. 그러나 여기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교통비의 할인, 점자도서의 출판, 세금의 감면, 생계자금의 대부 등과 같은 것이었다(25, p. 49). 특히 점자도서의 출판에 관해서는, 그것을 실현시켜 시각장애자의 독서자료를 늘리는 것은 점자도서관의 도서관적 기능을 전제로 한 요구라 할 수 있다. 게다가 원래 시각장애자가 점자도서관에 대해 기대했던 것은 갱생원호적 기능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자도서관은 원래의 도서관적 기능보다도 시각장애자에게 서비스하고 있다는 점으로 인해 갱생원호시설의 위치에 놓여진 것이다.

기술한 바와 같이, 점자도서관 성립 이전에 시각장애인은 스스로의 독서환경의 빈약함을 인식하고 필요성을 실감하여 점자도서관을 설립했다. 그 결과 점자도서관의 이용(대출)은 해를 거듭할 수록 증가했다(26, p. 61, p. 76, p. 82, p. 94, p. 179를 참조). 그러나 1960년대가 되어 시각장애자가 한층 더 정보요구나 정보획득환경의 열악함을 인식했을 때, 그 요구를 자신들이 필요해서 만들었던 점자도서관이 아니라 공립도서관으로 돌렸던 것이다. 그렇게 된 배경에는, 점자도서관의 갱생원호시설이라고 하는 자리매김에 의해 점자도서관의 도서관적 기능이 저하된 사실이 있다. 즉 점자도서관의 본래 업무인 도서관 서비스가 만족스럽게 수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서관 업무와는 직접 관계가 없는 갱생원호적 업무도 떠맡게 된 것이, 점자도서관의 도서관적 기능의 저하로 연결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는 하지만, 시각장애자의 점자도서관에 대한 요구나 기대가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었다. 점자도서관과 공립도서관의 장서의 종류나 제공하는 서비스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용자에 따라서는 각각의 도서관을 필요에 따라 이용하고 있다(10, p. 12). 나아가 점자도서관과 공립도서관의 차이에 대해서도 인식하고 있다. 자리매김에 있어서는 점자도서관은 갱생원호시설, 공립도서관은 사회교육시설이며, 점자도서관의 서비스는 “위로부터의 봉사”, 공립도서관의 서비스는 “이용자의 “권리”를 지키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아래로부터의 봉사”로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독서에 대하여 점자도서관은 “은혜”, 공립도서관은 “권리”로 파악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10, p. 13).

2 시각장애자의 정보요구의 표출 : 독서권운동

1960년대 이후 도서관에 대한 주민의 의식이 높아지고 도서관활동도 활발해졌다. 그리고 1963년에 일본도서관협회가 “중소도시의 공공도서관의 운영”(중소레포트)를 발표했다. 거기에서 “공공도서관의 본질적인 기능은 자료를 요구하는 모든 사람들이나 그룹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그리고 무료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하였다(17, p. 21). 또 1970년에는 “시민의 도서관”이 발간되었다. 여기서는 공공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을 명시하고, 시정촌(市町村)립도서관의 중요성, 그리고 특히 시립도서관이 하여야 할 서비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서술하였다. 그리고 “공공도서관은 모든 사람들에게 서비스한다”(18, p. 10~11)고 밝혔다. 그러나 도서관의 서비스 대상인 “모든 사람들” 속에는 소위 장애인, 특히 시각장애자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또 한가지의 배경으로, 1962년에 제출된 “東京都 공립도서관 종합계획”

이 있다. 1957년에 근대적 설비를 자랑하는 도서관으로 새롭게 탄생한 東京도립 日比谷도서관은, 많은 이용자가 만드는 행렬이 일상화되어 있었고, 서고의 수용 능력도 한계에 다다르는 등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그러나 日比谷도서관은 도립 도서관으로서 도전역의 도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단순히 한 도서관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이에 우선 도전역에 걸친 종합계획을 세우고, 그 안에서 日比谷도서관의 역할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던 것이다(16, p. 2). 이 계획서에서도 日比谷도서관은 도민에의 봉사목표를 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각장애자의 독서환경은 점자도서관 혹은 맹학교의 점자도서관이라는 범위로 한정되어 있었다. 특히 공부를 하는 시각장애자 학생의 경우, 선생이 사용한 교과서 등을 물려받거나, 스스로 자원봉사자 그룹을 조직하거나, 유료점역자나 유료낭독자에게 자료제작을 의뢰하는 등의 방법으로 최소한의 학습서나 전문서적을 확보하는 실정이었다(22, p. 26). 이러한 열악한 상황 속에서 시각장애자는, “모든 사람들” 혹은 “모든 주민”에게 서비스한다고 하는 공립도서관의 이념에 모순이 있음을 깨닫게 된 것이다. 市橋正晴는 당시의 의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정상인 친구들이 이용하고 있는 日比谷도서관이나 국회도서관을, 같은 도민이며 국민인 우리들은 왜 이용할 수 없는가.” 그리고 시각장애자 및 관련단체는 공립도서관에 대하여 개방을 요구하였던 것이다.

우선 東京시력장애자의 생활과 권리를 지키는 모임(이하, 東視協)은 1968년 장애자의 생활과 권리를 지키는 東京도민집회에 있어서, “레이프를 이용한 日比谷도서관의 개방”을 요구하였지만, “선처하겠다”고 하는, 극히 기계적인 회답을 받았을 뿐, 그 후로 1년간은 이 요구가 그대로 방치되었다. 그리고 1969년 일본맹대학생회와 S·L (Student Library)사무국이 “점자와 레이프를 이용한 개방”을 요구하려는 것을 알고, 세 그룹이 연합회를 조직하여 1969년 11월부터 1970년 3월에 걸쳐 日比谷도서관과 여러 번의 교섭을 하였다(8, p. 162). 그 결과 1970년 4월부터 녹음낭독서비스와 시범케이스이기는 하나 대면낭독서비스가 개시되었던 것이다.

시각장애자에 의한 독서권운동은 그것 뿐만이 아니었다. 1970년 6월, 日比谷도서관 이용자들의 모임, 日比谷도서관 낭독자의 모임, 레이프 야마비코회, 점자아우미회등 4개의 단체가 가담하여 시각장애자독서권보장협의회(이하 “시독협”)이 결성되었다(9, p. 112). 시독협의 활동은 東京도와 국립국회도서관, 더 나아가 도서관제에까지 확대되었고, 요구 내용도 시각장애자의 독서와 정보획득환경, 도서관 서비스의 필요성, 시각장애자서비스의 이해와 바람직한 방향 등으로 확대되었다.

東京도가 도립도서관으로서의 기능분담을 위해 도립중앙도서관을 건설할 것을 알게 된 시독협은, 도립중앙도서관과 요구사항을 교섭하였다. 1971년 5월에 日比谷도서관이 중앙도서관의 개관준비를 위해 이듬해의 1년간 시각장애자서비스를 중단하겠다는 의향을 나타냈던 것이다. 이에 시각장애자인 도서관 이용자에게 전단지 등을 배포하여 서비스를 계속할 것을 요구하는 운동을 일으켰고, 다시 교섭을 한 결과 1972년 10월의 한 달간만 중단하고 그 이외에는 서비스를 제

속하기로 결정되었다(8, p. 163).

같은 해의 12월에는 교육청 성인교육과와 日比谷관계의 예산에 대하여 교섭하였다. “昭和47년도 東京都예산에 대한 요청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1) 점역 및 낭독 봉사자에 대하여 그 노동에 적합한 정당한 보수를 공비로 보장할 것. (2) 이미 출판된 점자서와 그 활자원본과의 가격차이를 공비로 보조할 것. 이를 위해 우선 수요실태를 조사할 것. (3) 日比谷도서관의 낭독자 보수를 시급 600엔으로 하고, 교통비는 따로 지급할 것. (4) 중앙도서관 개관시에는 시각장애자를 위한 낭독실에 대하여 사무직원 외에 전문낭독직원을 반드시 배치할 것. (5) 내년도 日比谷도서관의 개축시에 낭독실의 증설을 잠정적으로라도 실현시킬 것(市橋光子「視読協報告」『点字あゆみの会会報』43, 1972, p. 10 ; 7, p. 37-39에서 재인용). 이 중에서도 특히 (1)과 (2)의 요구에 대하여 의논하였고, 과장 및 부하직원 담당자가 진지하게 들어주었지만, “아직 아이디어의 단계이며, 행정에 적용하기에는 상당한 우여곡절이 예상된다”고 하여, 시독협회의 이후의 과제로 남겨졌다. 그 후에도 시독협은 요청서나 청원서 등의 제출, 교섭 등의 활동을, 도청재무국 주계부(主計部) 예산제일과장 및 도회의, 도교육청 사회교육부, 민생국, 도민실, 기획조정국에 대하여 행하였다. 이러한 활동이 최종적으로 커다란 진전으로 이어진 것은 아니지만, 도서관이나 시각장애자 관계기관 뿐만 아니라, 보다 영향력이 있는 상부기관에 대하여 활동함으로써, 시각장애자서비스에 대한 인식을 넓힌 의의는 크다고 볼 수 있다.

국립국회도서관에 대해서는 1971년 8월, 도서관의 총무과장과 교섭을 하긴 했으나, 요구는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8, p. 163). 그러나 이것을 계기로, 보다 일반적인 도서관 관계자에게 호소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1971년의 전국도서관대회(岐阜)에서 시독협은 “시각장애자의 독서환경정비”를 요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하였고, 처음으로 장애인서비스의 추진이 결의되었다(21, p. 27). 이 호소문에 의하면, “독서는 인간의 문화생활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불가결한 조건이며, 나라 및 지방공공단체가 국민의 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한다면, 시각장애자의 독서할 권리도 당연히 보장해나가야 한다. ...도서관은 도서관자료를 일반공중의 이용을 위해 제공하는 시설이며, 시각장애자도 일반공중으로서 도서관을 이용할 권리를 갖는다. ...독서는 일상적으로 계속할 수 있는, 인간이 문화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의 기본적인 행위이며, ...문화행정, 사회교육행정(문부성소관)의 범주에서, 구체적으로는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9, p. 113-114). 더욱이 1972년 千葉대회에서는, “맹학생의 면학환경정비”라는 제목으로, 국회도서관과 대학도서관의 개방을 호소한 문장을 배포하고 5분간 취지를 설명할 기회가 주어졌다(2, p. 125). 이를 계기로 1975년 10월부터 국립국회도서관이 전국의 공공, 대학, 점자도서관을 접수창구로 하여, “학술문헌녹음서비스”를 개시하였다(22, p. 27). 그 밖에도 1973년에 東京의 日野시립도서관, 1974년에 大阪부립夕陽ヶ丘도서관에서 시각장애자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장애인서비스가 시작되었다(21, p. 16).

이상과 같이, 도서관의 이용에 대한 권리의식은 일반 이용자 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자에게까지 확대되었다. 그리고 도서관측에서도, 장애인서비스는 당연히 모든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포함되어있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였던 것이다(19, p. 164). 이러한 인식은 전쟁 전에도 있었다. 名古屋市립 도서관의 阪谷관장은 점자문고의 개설에 대하여, “...(중략) 말할 것까지도 없이, 창립 당초부터 항상 생각해왔던 것”(27, p. 2)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도서관이 용이 권리이며, 공립도서관의 서비스 대상으로 장애인 혹은 시각장애자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하는 인식이 보급되고 서비스 개념이 정착된 것은, 이 때부터라 할 수 있다.

3 독서권운동의 요인

3.1 시각장애자의 새로운 정보 요구의 발생

점자도서관이 처음부터 시각장애인 스스로의 필요성에 따라 설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시각장애자는 점자도서관 서비스에 불만을 품게 된 것일까. 그것은 점자도서관의 이용자인 시각장애인 자신의 요구가 변화하여, 초기의 점자도서관의 서비스에 더하여 더 다양한 서비스를 요구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 요인으로는 취학의무화에 따른 시각장애자의 교육기회의 확대와, 대학개방에 의한 시각장애자의 대학진학을 생각할 수 있다.

일본의 시각장애인 교육에 대해서는, 明治초기부터 맹아학교의 설립의 기운이 양성되어, 맹아에 대한 교육이 시작되기는 했지만, 제도적인 기반은 “소학교령”의 일련의 개정 및 “맹학교 및 농아학교령”에 의해 서서히 정비되었다. 우선 1890년 개정소학교령에서는 맹아학교의 설치 근거가 명시되었고, 이것을 받아 문부성령에 따라 맹아학교의 교원자격, 임용, 교칙, 교과용 도서 등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었다. 나아가 1923년 “맹학교 및 농아학교령”에서는, 맹학교와 농아학교를 분리하고 각각의 학교의 교육 목적을 명기하였으며, 초등부와 중등부를 둔 학교형태의 맹농아학교의 설치를 도부현(道府県)에 의무화시켜 국고 보조를 개시하였다. 또한 교육 경비에 관한 시책이 구체화되어, 昭和초기에는 경제지원으로서의 취학보조와 설비보조제도가 확립되었다(25, p. 212-213).

그러나 단순한 설치의무의 이행으로, 1924년의 시점에서 맹학교 설치자의 비율은 사립이 70%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 후 도부현(道府県)으로 공립화의 이관(移管)이 진행되어, 1944년에는 사립이 27.3%로 저하됨으로써 비율이 역전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학의무는 없었기 때문에, 학령기 맹아의 취학률은 39%라고하는 낮은 비율이었다(25, p. 213).

시각장애자의 교육 기회가 보장, 확대된 것은 1948년 맹농아동의 취학이 의무화되면서부터이다. 1946년에 전국농아학교 교원연맹이 결성되어, “맹학교 및 농아학교에 맹농아의 취학을 의무화하여야 한다”는 것을 결의하여 문부대사에게 요망서를 제출하고, 맹학교 관제자와 서로 제휴하여 취학의무제 실시운동을 전개하였다. 더욱이 미국교육사절단에 의한 보고서에서도, 장애가 있는 아동학생의 의무교육제도의 필요성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29, p. 65 ; 30, p. 6). 이렇게 해서 전후의 교육개혁의 하나로 맹농아 등의 취학의무제도가 실시되었다. 그 후 1950년에 맹학교 및 농학교의 취학의무에 관한 정령(政令)의 공포(1954년 학교교육법의 개정으로 삭제), 1954년 맹학교 농학교 및 양호학교에의 취학장려에 관한 법률의 공포(1을 참조), 1956년도에는 9년의 의무제가 완성되어(25, p. 215), 시

각장애자의 교육이 보급되어갔다.

한편 맹학교의 교육내용은, 1923년 “맹학교 및 농아학교령”에서 제시한 대로, 보통교육과 직업교육이 있다. 직업교육은 소위 3료로 불리는 침, 뜸, 안마를 주내용으로 한 “이료(理療)과” 교육이며, 1972년의 개정 전까지는 별과 2년제의 안마사 양성과 본과(3년)와 전공과(2년)의 5년제인 안마, 침, 뜸사의 양성과정이 중심이었다(25, p. 216). 또 보통과교육은 일반 초등학교나 중학교 등에 준한 교육과정이 편성, 실시되어, 맹학교용 국정교과서의 발행과 교육방법으로서의 직관교육의 중시, 교구의 고안 활용 등이 왕성하게 행하여졌다(25, p. 214).

그러나 교육제도가 정비되고 그 내용이 충실해져감에도 불구하고, 맹학교의 고등부에는 교과서 문제가 있었다. 1955년 10월에 출판된 “맹학교 교과서의 실태(고등부의 경우)”에서는 교과서의 부족, 시대에 뒤떨어진 내용, 비싼 대다 구입시 전액 본인부담이라고 하는 실정을 밝혔다(25, p. 225). 즉 맹학교 고등부의 보통교과의 점자교과서가 거의 없고, 있어도 이미 몇 년도 전에 폐간된 고교 교과서의 점역본이며, 학습참고서의 점자출판 등은 전혀 없는 것이나 다름 없었다(25, p. 234). 맹학교용 교과서의 편집발행에 대해서 문부성이 그 체제를 정비하기 시작한 것은 1954년 이후의 일이며, 고등부용 점자교과서 출판 촉진을 위해 미국에서 점자인쇄기를 구입하여 라이트하우스에 대여하였지만, 점자교과서의 수요가 적고, 민간의 점자출판소에 출판에 관한 재량권이 있었기 때문에, 교과나 과목에 따라서는 출판되지 않는 점자교과서도 있었다(25, p. 227-228). 이에 1955년 9월, 東京교육대학부속맹학교고등부의 학생들이 “전국맹학교학생 점자교과서문제 개선촉진협의회”(전점협)를 조직하고, 점자교과서문제 개선운동을 개시하였으나, 결국 1년후에 전점협이 해산되면서 이 운동도 종식되었다(25, p. 235-238). 이것은 시각장애자가 점자도서관에 대하여 일으킨 요구운동은 아니지만, 이 시점에서 이미 시각장애자가 자신들의 요구를 외부로 표출했다는 것이 중요한 점이라 할 수 있다.

시각장애자의 요구가 변한 또 한가지 요인으로, 시각장애자가 교육 보급의 연장으로 대학에 진학하게 된 것을 들 수 있다. 그 배경에는 시각장애자가 대학에 대하여 개방요구를 하고 그에 대하여 대학이 반응하여, 시각장애자가 시험이나 대학강의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정돈되기 시작하였던 것도 있다.

시각장애자가 대학에서 배운 예는 구학제(旧学制)시대에도 있다. 大正시기에 石松量蔵와 熊谷鉄太郎, 昭和의 전쟁전에는 岩橋武夫나 本間一夫 등이 있었다. 그러나 당시는 아직 정식으로 점자에 의한 수험이 인정되지 않았고, 맹학교가 일반 학제의 범위 밖에 있었던 시대로, 맹학교에서만 교육을 받은 시각장애자에게 통상 대학 진학은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대학이 시각장애자에 대하여 정식으로 문호를 개방하기 시작한 것은, 전후 새로운 교육제도가 발족된지 얼마 되지 않은 1949년이다. 이 해에 同志社대학교, 早稲田대학교, 日本대학교의 3개 학교가 점자에 의한 입학시험을 실시하였고, 同志社대학교 문학부에 2명, 早稲田대학교 문학부에 2명, 동 대학교 정경학부에 1명, 그리고 日本대학교 법학부에 1명이 진학하였던 것이다.

시각장애자의 대학 진학을 촉진하는 계기가 된 것은, 진학적성검사에서 점자에 의한 수험이 인정된 것이다. 1948년의 제1회째의 시험에서 점자수험자의

수험신청에 대하여 대학과 문부성은 처음에는 이를 거부했지만, “교육의 기회균등”이라는 새로운 사상에 따라 수험이 인정된 것이다. 또한 1949년에 사립학교의 문호가 개방되고, 1951년에는 국립인 東京교육대학교의 개방이 잇달았다. 이렇게 해서 매년 적어도 2~4명의 시각장애자가 수험, 진학하였다. 진학적성검사는 1954년까지 실시되었고, 58명의 시각장애자가 합격하였다. 더욱이 1955년 전후로 대학합격, 진학자수가 2자리 숫자로까지 늘어날 정도로, 전국적으로 시각장애대학생이 증가하였던 것이다(25, p. 274-275).

이와 같이 시각장애자의 교육 환경이 변화하자, 점자도서관을 설립할 초기에는 그 필요성조차 인식하지 못했던 다양한 학습자료나 정보를 시각장애자가 필요로 하게 되었다. 나아가 맹대학생의 전공은 한 사람, 한 사람 다 달라서, 교과서나 참고서 등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는 상태였다. 그러나 점자도서관에는 대학 수업에서 사용할 만한 교양서, 학술전문서적이나 학습서, 어학 교재 등과 같은 자료는 거의 없었던 것이다.

점자도서관에서 충족되지 않는 부분을 보충하기 위하여, 시각장애학생들 스스로 도서관을 만들었다. 그것이 1967년 11월에 결성된 “맹학생도서관S·L”이었다. 이것은 관동지구의 일반대학에서 배우는 30명의 맹학생으로 조직되어있는 일본맹대학생회가, 몇몇 대학교의 점역씨들의 도움을 받아 운영하던 것으로, 선배나 자신들이 다 쓴 점자나 테이프의 교과서나 참고서를 모아서 라벨을 붙이고 북카드를 쓰며 분류하고 책자형 목록을 만들어 회원에게 배포하여 공동이용하는, 문고활동과 같은 것이었다(15, p. 85). 그 후S·L은 본격적인 도서관만들기를 목표로, 사회복지사업진흥회나 일본점자도서관에 도움을 청하지만 실현되지 못했다. 그것은 점자도서관이 시각장애자 갱생원호시설이며, 그러한 종류의 업무는 문부성이 행하여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15, p. 86). 이 이유가 시각장애자의 독서환경을 한정하고, 확대되는 것을 막아버린 것이다.

또 이 시기는 고도경제성장과 도시화라고 하는 격심한 변화 속에서, 생활환경의 개선의 하나로 이용자들 사이에서 어린이문고운동과 도서관만들기 주민운동, 도서관에의 요구 등과 같은 활동이 일어났다. 그리고 도서관 이용이 권리라는 인식이 확립되어갔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육의 보급과 향상(대학 진학)에 의해 눈을 뜬 시각장애자도, 그때까지 읽을 자료를 제공해 온 일본점자도서관에 대하여 더 많은 도서관적 기능을 요구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당시 확립되어가던 도서관 이용의 권리를 공립도서관에 대하여 요구하는, 독서권운동을 시작한 것이었다.

3.2 점자도서관의 한계

독서권운동이 일어난 배경으로, 이용자인 시각장애자의 요구가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점자도서관이 그 요구에 대응하지 않았다는 상황이 있다. 그 이유로 점자도서관이 제작하고 소장하는 자료의 절대수의 부족과 내용적인 편협성(15, p. 241), 그리고 갱생원호시설로서의 은혜적인 입장이 지적되고 있다(14, p. 40).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왜 그러한 상황을 문제점으로 인식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점자도서관은 시각장애자의 요구에 대응하지 않았는가이다. 그것은 점자도서관의 일관된 태도와 시각장애자의 새로운 정보요구가 어긋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초기의 점자도서관은 시각장애자의 필요에 따라 성립했지만, 그 당시의 시각장애자의 필요는 일반가정에서 소장하기 힘든 점자도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도서관의 존재와, 시각장애자에게의 독서(점자도서)의 보급에 대한 요구였다. 점자도서관의 목적에 대하여 시립도서관의 관장은, “불행한 맹인 분들을 위해 점자도서를 구비하고, 그 연구와 위한을 위하여 설치하는 것”을 당연한 역할로 생각하고, 더하여 “본 시의 맹인 분들의 지덕향상”을 희망하고 있다(27, p. 2-3). 일본점자도서관의 목적도, “유익한 점자도서를 만들어 이를 보관함과 동시에, 주로 이것들을 우송으로 대출하여, 맹인문화의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되어있다(13, p. 228).

그 중에서도 특히 일본점자도서관을 설립한 本間一夫는, 점자책의 빈약함을 인식하고, 점자도서의 대출에 의한 독서의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26, p. 31), 이 입장은 그 후로도 계속 일관하고있다. 예를 들면 레이프 라이브리리에 대해서는, “점자 작업도 아직 완전하지 않은데, 레이프 작업에 힘을 할애하는 것은, 양쪽 다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 직원의 인식이 있었지만, 독자의 강력한 요망에 대답하고자 사업을 시작하였다. 이것은 점자도서와 그 형태가 다르긴 하지만, 점자를 읽지 못하는 시각장애자에 대하여 녹음도서로 독서를 보급한다고 하는, 점자도서관의 목적에는 다름이 없었다. 그러나 시각장애자가 스스로의 정보요구를 보충하기 위해 만든 S·L의 본격적인 도서관 만들기를 위해 일본점자도서관에 대하여 도움을 요청했을 때는, 시각장애자가 새롭게 필요로 한 전문자료의 제공에 대해서는 문부성관할의 공공도서관의 일이라고 하여(22, p. 26), 자료의 제공을 거절하였던 것이다. 즉 이용자의 일부인 시각장애자의 새로운 정보요구에 대응하는 것은, 시각장애자 전체에 독서를 보급하는 목적에는 맞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독서권운동이 일어난 근본적인 요인은 여기에 있다. 공립도서관이 이용자의 요구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이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한 경우와는 달리, 일본점자도서관은 성립초기부터 시각장애자에게의 독서보급이라고 하는 목적을 관철하기 위하여, 일부 이용자의 새로운 요구에 대응하는 것을 거절하였다. 게다가 갱생원호시설로서의 점자도서관의 법적인 자리매김도, 점자도서관의 도서관적 기능을 제한하는 한 요소가 되었다.

일본점자도서관이 독서의 보급이라고 하는 목적을 이렇게까지 관철시키고 있는 이유 중 하나로, 점자도서의 절대수의 부족을 들 수 있다. 어느 시기에 있어서도 일반도서와 비교해 절대적으로 수가 적은 점자도서의 문제는, 점자도서의 제작에만 사업을 집중시켜도 다 해결할 수 없다. 그것은 1990년대 이후 점자도서관의 네트워크 “점역광장”이 생겨도 점자도서관 장서의 절대수의 적음이 지적되고(4, p. 3), 점자도서관의 재정기반이 약하여 점자자료의 구입도 할 수 없는 도서관이 많으며(5, p. 4), 나아가서는 2004년의 최근 문헌을 보아도, 자료제작의 중복제작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것(28, p. 11)을 봐도 알 수 있다. 이렇듯 완전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보충하기 위해, 일본점자도서관은 그 사업 목적을 점자, 녹음도서의 제작과 보급으로 한정하여 기능해왔던 것이다.

이와 같이, 이용자인 시각장애자의 새로운 정보요구와 이에 대응하지 않고 일관된 목적으로 활동한 일본점자도서관 사이에서 생긴 어긋남이, 일본점자도서

관의 상황을 문제점으로 인식하게 했고, 시각장애자의 요구를 공립도서관으로 향하게 한 요인이 되었던 것이다.

결론

독서권운동이 일어난 이후로, 점자도서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문헌을 상당히 많이 볼 수 있다. 그러한 문헌을 보면 점자도서관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으며, 시각장애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물론 점자도서관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독서권운동의 요인은 점자도서관의 문제 이외에도 존재한다. 그것은 시각장애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심적인 역할을 맡아 왔던 일본점자도서관이 관철하였던 목적과, 이용자인 시각장애자의 요구와의 어긋남이다. 또한 이러한 어긋남이 생긴 이유는, 의무교육에 의한 교육의 보급과 대학에의 진학 등과 같이 시각장애자의 상황의 변화와 그에 따른 새로운 정보요구에, 일본점자도서관이 일관된 목적의식과 서비스를 위해 대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각장애자의 정보요구의 표출이었던 독서권운동이 점자도서관, 공립도서관 양쪽에 준 의미는 크다고 할 수 있다. 점자도서관에게 있어서 독서권운동은, 애매했던 점자도서관의 기능에 대하여 비판하고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재고하는 기회를 주었다. 여기서 도서관적 기능이란, 이용자의 요구에 대응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1980년대 이후의 점자도서관을 관찰해보면, 더이상 점자도서관은 “복지적” 시설이 아니며, 정보제공기관, 시각장애자서비스로 특화시킨 일종의 “전문도서관”임을 강조하고 있다(5, p. 9 ; 28, p. 9).

그와 동시에, 독서권운동은 공립도서관에 있어서 장애인서비스의 개념을 정착시키고, 또 시각장애자서비스의 바람직한 방향에도 영향을 주었다. 즉 자원봉사자에 의한 무료봉사에서 유료봉사여야 한다는 인식(7, p. 25-26), “장애인서비스”는 도서관의 당연한 임무라고 하는 의식(23, p. 34)이 보급, 정착되어온 것이다.

<引用文献>

- 1) 池田敬正、土井洋一編 『日本社会福祉綜合年表』 京都：法律文化社，2000
- 2) 磯村英一、松浦総三編 『国立国会図書館の課題』 東京：白石書店，1979
- 3) 岩橋武夫 『暗室の王者』 大阪：日曜世界社，1932
- 4) 大橋由昌 「点字図書館のサービスに望むこと——利用者の視点から——」 『視覚障害』 131, 1994, p. 1-8
- 5) 加藤俊和 「点字情報ネットワークの新たな発展へ——「てんやく広場」の広がり——」 『視覚障害』 143, 1996, p. 1-9
- 6) 河村宏 『図書館と国際障害者年——情報へのアクセスの平等を求めて——』 東京：日本図書館協会，1982
- 7) 川村吉乃 『視覚障害者読書権保障協議会の成立に関する一考察』 図書館情報大学卒業論文，1990

- 8) 視覚障害者読書権保障協議会 「視読協とその視覚障害者の読書環境のビジョン」『図書館界』24(4), 1972, p. 162-167
- 9) 視覚障害者読書権保障協議会 「視覚障害者の読書環境整備を」『図書館雑誌』66(3), 1972, p. 112-115
- 10) 瀬川三枝子 「「本の香り」の図書館づくりを」『点字図書館問題』第16号, 1984, p. 12-14
- 11) 関宏之 『岩橋武夫—義務ゆえの道行—』盲先覚者伝記シリーズno. 1, 東京: 日本盲人福祉研究会, 1983
- 12) 竹林熊彦 「点字図書と盲人図書館運動」『図書館研究』VI-1(21), 1933, p. 37-53
- 13) 竹林熊彦 『特殊図書館』東京・京都: 蘭書房, 1955
- 14) 点字図書館ハンドブック編集委員会編 『点字図書館ハンドブック』東京: 日本盲人社会福祉施設協議会, 1982
- 15) 図書館問題研究会編 『障害者と図書館—図書館奉仕の原点としての障害者サービス—』東京: ぶどう社, 1981
- 16) 永井長雄 「東京都新設図書館建設構想の発端と経過」『ひびや・東京都立日比谷図書館報』8(1), 1965, p. 1-3
- 17) 日本図書館協会編 『中小都市における公共図書館の運営』東京: 日本図書館協会, 1963
- 18) 日本図書館協会編 『市民の図書館』東京: 日本図書館協会, 1970
- 19) 日本図書館協会編 『市民の図書館—増補版』東京: 日本図書館協会, 1976
- 20) 日本図書館協会障害者サービス委員会編 『としょかんサービスこれからの課題—障害者と読書権—』東京: 日本図書館協会, 1984
- 21) 日本図書館協会障害者サービス委員会編 『すべての人に図書館サービスを—障害者サービス入門—』東京: 日本図書館協会, 1995
- 22) 日本図書館協会障害者サービス委員会編 『障害者サービス』東京: 日本図書館協会, 1996
- 23) 日本図書館協会図書館政策特別委員会編 『公立図書館の任務と目標 解説 増補版』東京: 日本図書館協会, 1995
- 24) 日本図書館協会図書館ハンドブック編集委員会編 『図書館ハンドブック第6版』東京: 日本図書館協会, 2005
- 25) 日本ライトハウス21世紀研究会編 『わが国の障害者福祉とヘレン・ケラー—自立と社会参加を目指した歩みと展望—』東京: 教育出版, 2002
- 26) 本間一夫 『指と耳で読む—日本点字図書館と私—』東京: 岩波書店, 1980
- 27) 間宮不二雄 「公共団点字文庫—名古屋市立団点字文庫ノ状況」『団研究』III-1(9), 1930, p. 1-25
- 28) 水谷昌史 「これで良いのか? 点字図書館」『視覚障害』196, 2004, p. 8-17
- 29) 村井実 『アメリカ教育使節団報告書 全訳解説』東京: 講談社, 1979
- 30) 文部省 『第二次訪日アメリカ教育使節団報告書 (仮訳)』東京: 文部省, 1950
- 31) 山県五十雄 「日本現時の盲人社會」『万朝報』第四千六百八十號, 1906. 9. 6, p. 3